

 <b>여의도연구원</b> <b>보도자료</b> <small>THE YEUIDO INSTITUTE</small>		담 당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경제비전센터
		연락처	전화: (02) 6288-0531 팩스: (02) 6288-0536 이메일: lee.jong.in@ydi.or.kr
보도일시	배포시점 이후	배포일시	2020.1.8.(수) 13:00
(072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www.ydi.or.kr			

**“국민 10명中 5명, 文 정부서 살림살이 더 나빠졌다”**  
**“보수·중도 모두 文 경제정책 부정 여론 압도”**  
**“중도층, 文 경제 부정여론 두 배 이상 높아”**  
 <못함 54.7%, 잘함 25.3%>  
 - 여의도研 신년 국민 경제인식 조사 결과 -

□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성동규)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진단해보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953명을 대상으로 1월 2(목), 3(금)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ARS전화조사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비율은 6.9:3.1이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 2.22%P이다.

□ 조사·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와,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인상, 퍼주기 재정,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매우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의 정책 용어가 정치적 이념화로 변질되어 인식되고 있는 점, 보수는 물론 중도성향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생활경제 평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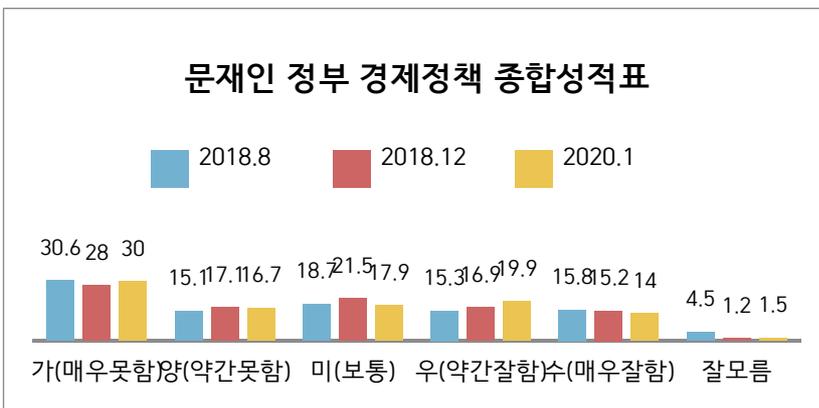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7.3%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좋아졌다는 여론은 그 절반 수준(24.2%)에 그쳤다. 더욱이,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에도 나빠질 것(42.8%)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27.4%)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남성, 30·40·60대, TK·PK지역, 보수·중도, 농임축산업·자영업·판매영업·생산기  
 능노무직군은 부정평가평균(47.3%)보다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②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성적표

32개월간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는 ‘아주못함’(可)이 30.0%로 지배적이며, 부정평가(46.7%)가 긍정평가(33.9%)보다 12.8%p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도 성향 국민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목할 점은 진보 성향 국민의 인식전환이다. 부정인식 비율이 25.1%(18.8월)→32.2%(18.12월)→32.8%(20.1월)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긍정인식 비율은 64.4%→39.0%→45.0%로, 낮아진 후 다시 높아졌다.



### 이념성향별 평가 (%)

		응답자 구성	잘함	못함
이 념 성 향	보수(32.4)		27.2	57.1
	중도(27.2)		25.3	54.7
	진보(40.4)		45.0	32.8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추진에 대한 찬성 여론은 27.4%로 1년전 조사(29.1%)에 비해 낮아진 반면 보완·수정·폐기 등 반대 의견은 68.4%로, 1년전(67.8%)보다 높아졌다.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49.9%)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을 그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향후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이다.

-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잘하고 있음 30.2%, 보통 17.6%, 잘못하고 있음 49.9%
- 향후 고용상황: 나빠질 것(47.2%)이 좋아질 것(26.4%)이라는 응답의 2배 수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으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18.12) 조사 대비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8%p 줄은 반면, 부정적 응답은 오히려 0.8%p 늘어났다. 또한, 보수와 중도 모두 부정적 여론이 월등히 높은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긍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구성		잘함	못함
이념성향	보수(32.4)	30.4 (23.1)	55.3 (58.0)
	중도(27.2)	29.6 (22.3)	54.4 (58.0)
	진보(40.4)	47.4 (34.5)	34.5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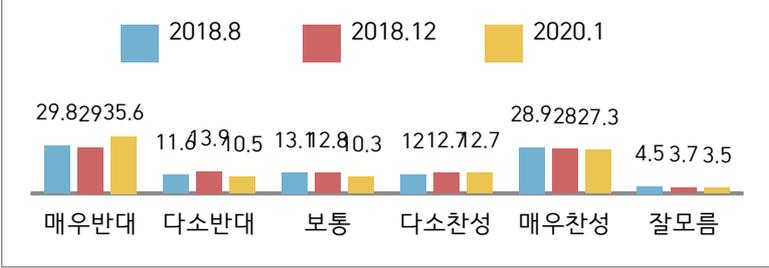
※ 괄호 안은 2018.12월 조사 수치임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근의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았으며, 무엇보다 나라곳간의 고갈을 심각하게 염려(54.5%)하고 있었다.

-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 잘하고 있음 37.1%, 보통 12.1%, 못하고 있음 49.1%
- 부정적평가의 주된 이유는, 재정고갈 우려(5.45%), 국가경쟁력약화(18.4%), 공공부문 비대화(13.9%), 민간경제활력 저하(11.5%) 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7.9%p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중도=반대, 진보=찬성’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관련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탈원전 정책 평가



### 이념성향별 평가 (%)

응답자 구성		찬성	반대
이 념 성 향	보수(32.4)	29.8	56.5
	중도(27.2)	30.6	55.0
	진보(40.4)	54.6	31.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17.3%p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 대책보다는 **'단기적 미봉책에 의존'**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 평가
- 잘하고 있음 32.6%, 보통 14.5%, 못하고 있음 49.9%
- 잘못된 이유: 단기적 미봉책에 의존(33.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집값양극화 심화(19.6%), 지나친 부동산 과세(18.2%), 정책의 일관성 결핍(13.6%), 공급대책 등한시(13.0%) 순

### ③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양극화(45.1%)**를 꼽았으며, 이어 인구감소(16.6%), 성장률 하락(15.7%), 협력·신뢰부족(10.7%) 순이었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격차해소와 더불어 일자리확충과 기업투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개혁과제로,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 정책우선순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 소득격차해소(26.6%), 일자리확충(20.0%), 기업투자확대(16.7%), 공정경제실현(15.5%) 순
- 경제개혁분야: 지속·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경제개혁 분야
- 경제전반 규제 개혁(23.0%), 노동시장구조개혁(21.2%), 복제제도개혁(17.2%), 4차산업혁명규제개혁(16.9%)

향후 금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현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 추진에 정책오류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내용 문의는 이종인 수석연구위원(02-6288-0531, 010-3168-1306)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